



지부교섭 속보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상병휴직 기간 보장!
기본급 146,746원 인상!

제09호 / '18.6.22(금)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냉각기 동안 의견 조율하자

10차 교섭에서 결렬 선언

어차피 결렬될 거라 제시안 없다?

21일(목) 15시 대한이연에서 10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19일(화) 중앙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지부교섭도 결렬될 것으로 예상되긴 했지만 사용자 측은 아무 준비없이 당당히 10차 교섭에 들어왔다. 어차피 교섭 결렬될 거니 제시안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정태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면 최소한은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 현대차도 미약하나마 임금안을 냈다. 지부 사용자들 행태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올해 요구안 전혀 부담없다.

올해 지부 요구안은 임금인상, 노사공동위 구성, 개인 상병휴직기간 인정 3가지이다. 노사공동위는 사측도 알다시피 이미 기존에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를 합의한 바 있다. 사실상 아무런 부담없는 요구안이다. 다만 올해는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는 사업장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동위를 구성하자고 확대 제안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현대기아차까지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실질적인 논의까지 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측

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만 대고 있다.

개인 상병휴직은 더 간단하다. 사측은 휴직기간 임금 문제에 전혀 부담이 없다. 지부가 애초에 요구할 때 임금은 지회별 단협에 따라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측 교섭위원은 아픈 조합원이 중간에 회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다면서도 휴직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사측이 판단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지부는 임금을 양보한 만큼 휴직기간 인정은 사측이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뜻을 박았다.

냉각기 거쳐 좀 더 진전해보자

지부는 10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지금껏 제자리 걸음 중인 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측 모두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이다.

지부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6월 27일 일괄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이후 7월 4~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본격적인 임단투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담없는 요구안에 오버하지 말라

사 : 공교롭게도 화요일 중앙교섭 결렬 선언했고 오늘 저희 회사에서 결렬 선언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도 저희 회사에서 지부교섭 결렬선언했는데 올해도 공교롭게 그렇게 될 것 같다. 최근 여러모로 어수선하다. 선거도 일방적인 결과로 끝났고 북한 문제도 있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통상압박도 있다. 다들 자동차 업종이 많으니 알겠지만 저희 회사도 1년 매출이 100억원이 빠졌다. 올해도 100억 빠질 것이다. 자금 압박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와중에 세계적으로 자동차 25% 관세를 한다고 한다.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거라지만 일본이나 독일은 브랜드가 있으니 가격이 올라도 타격이 덜할텐데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300~500만원 올라가면 팔릴지 우려가 있다. 중앙이든 지부든 노사간에 열심히 교섭하면서 이런 점 감안해서 적어도 지부 교섭위원들은 노측이나 사측이나 자주 뵈고 싶은 교섭 여건이 되도록 지부장님 중심으로 협조 부탁드린다.

노 : 저는 결렬이라고 생각 안한다. 의견 조율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조합도 요구안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다. 교섭 결렬이라기 보다 냉각기라고 보는 게 맞겠다. 사실 세계 경제가 트럼프가 나오면서 무역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수 진작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매년 진작이 안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나아질 거란 기대를 했는데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단적으로 최저임금, 주52시간 연장 지침 등 보면 수출 부진을 내수 증진으로 해결할 생각인지 의심스럽다. 교섭하면서 금속노조가 올해 고민하는게 그런 부분이다. 하후상박도 그렇다. 내수 살리고 모두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게 금속노조가 갖고 있는 생각이다. 현대차가 임금 동결 주장하다가 임금안을 제시했다. 현대차가 양보한 듯 보이지만 정부 정책을 보면 그렇지 않다. 경영진은 힘들다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노동계 입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사내유보금 쌓인 걸 풀고 더 형편 좋은 기업이 사회연대기금 내놔서 사회적으로 풀어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우리도 작은 기업 망가뜨릴 생각 없다. 큰 기업, 사내유보금 많은 기업이 일정하게 양보해야 교섭하는 의미

를 살릴 수 있다. 오늘 제시안 있나? 없으면 냉각기 갖자.

사 : 중앙이 결렬했고, 다음주에 일괄 조정한다니 오늘 안을 내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시안 준비를 못했다.

노 : 안타깝다. 최소한 조합원의 분노를 낮추려면 최소한 제시안을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요새는 안 그런 것 같다. 현대차는 임금안 내놔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사 : 숙려기간을 갖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각 사별로 임금을 제시할만큼 저희 교섭이 진행이 안된 것 같다. 냉각기 지나면 잘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 중앙교섭도 예전에 비해 가입 회원수가 상당히 줄었다. 지부도 참여는 일부만 정해져 있고, 이런 것부터 개선돼야 산별 공동위도 되지 않을까 한다. 지부 사용자도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각 사별로 안을 못내고 있다.

노 : 노사공동위 참여하면 된다. 누차 말하지만 정책 협의체다. 너무 오버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해라.

사 : 중앙, 지부, 저희 매년 3중 교섭을 한다. 교섭에 위원회에 오라가라, 시간빠서 협의하자, 일이 늘어난다. 금속산별 노사공동위가 이미 설치돼있다. 거기서 임금도 논의할 수 있다. 굳이 또 공동위를 만든다는게 현대기아차 들어오게 하려는 것 같은데.

노 : 기존 합의된 게 있으니 부담 없지 않다. 현대기아차 들어오게 하려는 것 맞다. 노사공동위에서 머리 맞대고 중앙교섭 진행까지도 논의하자는 거다. 지역지부는 부담될 게 없다. 다 알다시피 자동차업종은 현대차가 주무른다. CR들 어오면 그대로 맞아야 하고 그런 걸 안으로 끌어들어서 해결해야하는데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울거다. 현대차도 자기들 겨냥한 것 알아서 안들어오려고 할거다. 그래서 전체 사업장이 참여해서 현대차 들어오게 하자는 거다.

건강권 휴직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 부담이 없으니 들어줬으면 좋겠다. 냉각기 동안 각자 고민해서 안을 도출해보자.